자동차·철강 수출 '타격'…금호타이어 '수혜'

'트럼프 쇼크' 희비 엇갈리는 광주·전남 주력산업

FTA 재협상시 관세 재부과 등 국내차 30조원 피해
금호타이어, 조지아주 공장 생산비중 높아 유리할 듯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가전, 철강 등 지역 주력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업체는 미국 공장 가동 등 선제적 조치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지역 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주력산업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트럼프는 자동차 업계 관련 주요 공약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관세 2.5% 재부과 ▲멕시코 수출차량 관세 35% 부과를 내걸었는데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미 FTA가 전면 재협상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3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멕시코 공장을 가동중인 기아차는 현지 공장 생산량의 6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관세가 상승하게 되면 이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제철 등 지역 철강업계도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분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부과 등 강력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중 대미 수출 비중(금액기준)은 2010년 9%에서 지난해 13%까지 늘었다. 지난해 대미 철강수출은 418만t에 달한다.

이 밖에 삼성전자 등 가전업계도 미국의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수출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된다.

프리미엄 가전 기지인 광주사업장을 비롯해 삼성전자는 북미 시장에서 2014년 43조3940억원, 2015년 42조504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트럼프가 내세웠던 FTA 재검토 공약이 실제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낄수 밖에 없다.

지역 가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공장이 없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관세를 올리는 등 정책이 시행되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아차 등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지만 미국공장을 보유하거나 건설하고 있는 타이어기업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초 미국 조지아주에 세번째 해외공장을 열었다. 금호타이어의 조지아공장은 연간 400만 본 규모의 생산규모를 갖췄으며 초고성능타이어(UHPT)의 생산비중이 높다.

이와 관련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미 FTA가 재협상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히 읽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 직원들이 새롭게 단장한 공식 블로그 '플레이 기아'를 시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블로그 소통'

'플레이 기아' 오픈…고객 의견 청취·추억 공유

기아자동차가 새롭게 단장한 공식 블로그 '플레이 기아(http : //play.kia.com)'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플레이 기아'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고객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하기 위한 창구로 'K에게 말해봐' '알려드립니다' 메뉴를 개설했다. 'K에게 말해봐'는 고객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평소 기아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 속상한 점, 자랑하고 싶은 점 등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아차는 이 중 특별히 고객문의가 많은 의견을 뽑아 고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보다 많은 고객들과 공유한다. 또 기아차는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아차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고객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코너도 마련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담양·강진, 귀농·귀촌주택 시범사업 선정

LH, 전국 8개 구역 토지·자금 지원…내년 하반기 착공

담양과 홍천 등 8곳에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 사업 후보지 공모 평가결과 8개 시·군을 우성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력이 유입돼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 하도록 지난 2월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기존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주택을 지으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해 분양·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지난 8월25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했다. 총 20개 시군에서 24개 사업후보지를 접수했다.

이중 최종 평가를 거쳐 8개 사업후보지가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된 시·군은 호남권은 담양군(1순위)와 강진군(2순위), 경기·강원권에서는 강원 홍천군(1순위)과 영월군(2순위)이다. 충청권에는 충남 아산시(1순위)와 청양군(2순위),영남권에서는 경남 함양군(1순위)과 함안군(2순위)이 뽑혔다.

LH는 연말까지 시범사업 사업구역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사업주간사 공모를 거쳐 금융주간사와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시범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해 내년 하반기 착공, 오는 2018년에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LH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응모하지 못한 지자체도 내년 시범사업 이후 귀농·귀촌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연말까지 시범사업 사업구역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사업주간사 공모를 거쳐 금융주간사와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시범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해 내년 하반기 착공, 오는 2018년에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2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6	10	30	34	37	3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243,464,400	5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8,265,840	56
3	5개 숫자일치	1,446,168	1,869
4	4개 숫자일치	50,000	94,693
5	3개 숫자일치	5,000	1,559,062

반려동물 월동준비 하세요 13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 패션스트리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강아지들의 월동 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 백화점은 반려동물을 위한 옷 패딩, 니트, 후드티 등을 1만~6만원대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상의, 내일 車산업 인적개발 포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사)광주자동차산업협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4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 포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포럼 1부에서는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장을 지낸 세종대 경영학과 이성철 교수가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와 인적자원개발'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2부에서는 전남대 경제학부 홍성우 교수의 사회로 광주고용복지센터 하창용 소장, 광주시 손경종 자동차산업과장, 세종대 이성철 교수, 조선대 유영태 교수, 호남대 김철수 교수, 자동차부품연구원 이천환 본부장, 현대하이텍 임완섭 전무가 참여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 방향에 관해 종합토론을 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감원, 광주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인과 소상공인, 금융소비자의 금융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은행들이 여전히 담보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을 결정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편이라고 건의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과 현지 금융기관, 지방중소기업청은 이밖에 중소기업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금융애로 상담과 금융정포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